



“Fusion” 그것이 우리의 선택일까?



오 영 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youngjei@kist.re.kr

요즘 우리는 Fusion 이란 언어가 매우 어색하질 않다. 아마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적어도 몇 번쯤은 들어 보았음직 하다. 요사히 떴다하는 신곡을 들으면 가사 중간에 영어 가사가 대부분 들어 있다. 대중음악에도 이제는 당당히 이중언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또 음식에 대한 fusion이 문화의 한 형태로 확산되더니 요즘은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까지 도입되는 추세이다. 이대로 가다간 최후의 보루일 종교 범주에까지 fusion이 도입될지도 모르겠다. Fusion은 각각의 장점을 살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창출과 혼합이란 면에서는 고무적이고 우리가 언제라도 수용해야 할 태세를 갖춰야 하겠지만, 과학·기술 역시도 이제는 전공이 뚜렷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 추구보다도 그 영역이 애매 모호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세라믹의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왔었던 세라믹스 분야에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및 화학공학자, 연금학자, 고분자학자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가웃거리며 세라미스트의 영역을 fusion 시키고 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세라믹스도 이들로부터 세분화 된 것이지만..... 아무튼 앞으로 무엇이 진정 세라믹 고유의 학문 영역일지 세라미스트들 스스로가 당차게 챙겨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초부터 실력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정비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0년, 20년후의 세라믹스의 발전에 대해 각론적

으로 어떤 분야는 어떻게라고 구체화시키기 전에(사실 우리의 기획자료와 예측능력이 선진외국 자료를 상당부분 참고하지 않았었는가?) 근본적으로 각자의 현 위치와 문제점들을 잘 분석, 점검하면 첨단/고전분야에서의 세라믹 분야별 발전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현 위치와 자기를 먼저 냉철히 점검하고 이에 맞는 실력을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세밀히 보수하여 fusion 되어 가는 신학문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첨단 세라믹에만 온통 매달려 아직도 영세하고 낙후된 세라믹산업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재료분야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산업이 될 수 없는 보조산업적인 한계를 잘 알지만, 그래도 세라믹 산업의 협소한 시장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기술에 대충 만족하거나 도전의식이 크게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전통 세라믹 업계를 세라미스트들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 어렵게 공부하고 연마한 우리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쓸모있는 일일까? 보람있는 일일까? 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실사구시의 전도자가 되도록 업계에도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양파니 쪽파니, 냉파니 온파, 매파니 하여 분열되어 오거나 대립되어진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모두가 진정한 한국세라믹스의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fusion될 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제화, 세계화로 향한 우리의 당면한 또 하나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싶다.

“Fusion” Is this our choice? Young-Jei O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